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소식

인천소식

김주희
인천일보 기자

다인인천학신서 시리즈 제8권 출간

인천지역의 문화와 사회, 역사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다인인천학신서 시리즈 제8권 『살아있는 다큐멘터리, 인천(仁川) 근대도시 형성과 건축』은 인천의 건축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담고 있다. 특히 건축과 근대도시 형성의 연관성을 재조명한 것은 지역사 연구에 또 하나의 화두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인하대 건축공학과를 거쳐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지금은 북경칭화대학 건축학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안(40) 씨가 펴냈다. 인천문화의 특징적 요소들과 함께 근대도시형성과 건축개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사진, 건축물, 설계도, 지도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한다. 구한말 조선의 주요 근대 건축물을 일목요연하게 도로로 제시한 대목에서는 인천이 근대 건축물의 요람이란 사실을 새삼 확인시키고 있다. 디자인아트, 242쪽, 1만2천500원

아시아 필하모닉 아카데미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지휘하는 아시아 필하모닉 아카데미(이하 APO)가 12일과 13일 인천종합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다. APO는 인천시가 8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제예술제 '인천 & 아츠'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오케스트라 아카데미로, 한국과 일본, 태국 등 아시아의 젊은 연주자(만 29세 이하) 100여 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8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공연에서 정명훈과 APO는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과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을 선사했다. 한편 정명훈은 '인천 & 아츠'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본부를 인천에 설립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인천지역은 음악학교,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적당하다"며 "2008년까지 3년간 오케스트라, 성악가, 지휘자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워크숍 개최 등 양성자를 위한 아카데미도 본격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안상수 시장은 "정씨의 아시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본부의 인천지역 건립은 예술인 타운, 예술대학 건립 등 인천지역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치소 미술치료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미메시스의 정원>

지난 8월 5일 인천 구치소에서 색다른 전시회가 열렸다. 전국 최초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마친 재소자들이 그동안의 교육성과를 담은 작품을 전시한 것. 이번 구치소 미술치료프로그램은 인천 예총이 기획했다. 윤영옥(숙명여대 평생교육원 교수), 최병국(서울대 대학원 교수), 이탈 신종택(설치미술가) 등 작가들이 미술치료전문가로 참여했다.

탁종이, 홈스케치, 미술치료 등 색선별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후 마지막 열흘 동안 본격적인 벽화제작에 들어갔다. 회색의 벽을 가로지르며 펼쳐진 50m 길이의 화려한 벽화는 <미메시스의 정원>이란 이름이 붙었다. 강의를 수료한 탁종이 공예품, 수채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미술품 50여 점을 전시했다.

한국미학의 선구자, 우현 고유섭의 생애와 연구자료 전

일제시대 미술사학자 우현(又玄) 고유섭(高裕燮, 1905~1944)의 미공개 자료사진이 인천에서 최초 공개됐다. 우현은 일제시대 미학과 미술사를 국내에선 처음으로 전공하고 이를 뿌리내리게 한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미의 특징을 '무기교의 기교', '비정제성', '민예적인 것', '구수한 큰 맛' 등으로 압축해 표현하기도 했다.

인천문화재단(대표 최원식)은 지난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인천종합문예회관에서 <한국미학의 선구자, 우현 고유섭의 생애와 연구자료 전>을 열었다. 인천문화재단이 우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현이 1933년 이후 개성시립 박물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자료 수집차 찍었던 미공개 사진들을 공개했다.

한편 12일 인천종합문예회관에서는 '동아시아 근대미학의 기원-한 중 일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현 고유섭의 업적에 대한 해석 및 승계 작업을 현재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고유섭 해석의 제 문제'를 발제한 이인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그 동안의 연구가 고유섭 학문의 형성 요인으로 시대적 상황이나 역사성에 지나치게 주목함으로써 정작 고유섭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해석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자들의 성급한 단정적 평가로, 고유섭이 고뇌했던 역사성과 초역사성, 특수성과 보편성, 미술사학과 미학, 역사와 체계 사이의 균형 잡기가 희석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림의 시집 『상자들』 출간

전 인천작가회의 지회장으로 인천 지역에서 활발한 문예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경림 시인이 오랜만에 새 시집 『상자들』을 내놨다. 내밀한 상자에 대한 몽상의 풍요로움을 잘 보여주는 시집 『상자들』은, 같은 제목을 부제로 달고 있는 시들이 대부분이어서 연작 시집이라 할 수 있다.

〈원고지 빈 칸〉에서부터 〈떡다 만 사과 하나〉 〈쭈글쭈글한 주전자〉 〈관〉 〈가방〉 〈부엌〉 등이 모두 시인의 눈에는 '상자'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아버지〉 〈어머니〉도 상자로 치환된다. 시인은 '상자'를 통해 개인의 삶 뿐 아니라 그보다 큰 범주인 여성성, 사회제도, 혹은 문명을 상징하기도 한다. '상자'를 매개로 한 저자의 상상력은 일상의 체험과 생각, 습관을 뒤틀거나 뛰어넘는 풍요로운 몽상으로 이어진다. 랜덤하우스중앙, 157쪽, 6천원.

인천 신세계갤러리 〈태극기와 태극문양전〉

광복 60주년을 맞아 구한말 태극기부터 최근의 태극기까지, 그리고 태극 문양이 들어간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전시한 〈태극기와 태극문양전〉이 8월 10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구한말부터 대한제국, 일제기, 해방 이후, 6·25전쟁과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 이후 등 시대별 태극기와 다양한 유물들이 역사적 의미와 사연들이 함께 선보였다.

구한말 태극기로는 대한제국 시절 사용했던 태극기를 비롯해 적십자 가입시 사용한 태극기, 담배회사 광고용의 형겅 태극기 등이 전시됐다. 일제 강점기 3·1 만세운동 태극기와 해방을 맞아 일장기에 태극기를 덧그린 커다란 태극기, 미군의 진주를 환영하는 문구가 삽입된 태극기도 있다.

이원규의 『약산 김원봉』

약관의 나이에 의열단, 조선의용대를 이끌며 독립운동을 펼쳐 항일투쟁의 신호로 남아 있는 약산(若山) 김원봉의 일대기를 담은 평전이 나왔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실천문화사에서 역사인물찾기 시리즈의 일환으로 출간한 『약산 김원봉』은 이제껏 잊혀져가는 독립

투쟁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자인 소설가 이원규(58) 씨는 이념의 굴레에 갇혀 남과 북 어느 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약산과 의열단 사람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책 내용은 약산 한 사람의 삶과 투쟁에 그치지 않고 의열단선언을 작성해 준 단체 신채호, 약산을 라이벌로 인식했던 백범 김구, 여기에 약산의 명령 한 마디에 폭탄을 품고 안고 죽어간 의열단원 윤세주, 이종암, 박재혁 등 무수한 인물들의 삶을 담고 있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약산의 출생과 성장기를 다뤘다. 2, 3부는 의열단 창간과정부터 각종 테러활동, 조선의용대 활동과 광복에 이르는 시기다. 4부에서는 광복 이후 고국에 들어온 약산이 북한에서 최후를 맞는 시기를 담았다. 저자 이원규는 인천 출생으로 주로 분단과 이념을 주제로 왕성한 집필활동을 해왔다.

인천종합문예회관 무대에 오른 〈아리랑〉

인천시립극단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을 원작으로 한 연극 〈아리랑〉을 무대에 올렸다.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인천종합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펼친 연극 〈아리랑〉은 12권 분량의 대하소설을 과감히 연극 무대에 올렸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다양한 공연 양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프로젝션을 통한 영상과 회전문대를 이용해 시 공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한 점이나, 신디사이저, 장구, 북, 아쟁과 같은 동서양 악기를 생음악으로 연주하고, 총소리 등의 특수효과를 사용하는 등 시립극단의 열의를 느끼게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역시 소설 아리랑이 12권의 분량인데다, 등장인물이며, 무대의 배경이 국내는 물론, 하와이, 만주, 러시아 등 다양해 의욕을 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질책도 나왔다. 에피소드식 사건의 나열과 잦은 암전은 작품을 평면적으로 만들고, 감정이입까지 방해함으로써 극적 재미를 반감시켰다.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다보니 무대 위에서 배우들의 동선이 겹치고, 시선이 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리듬감이 살아나야 할 배우들의 사투

리도 설명적인 대사에 묻혀 객석으로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평이다.

경기소식

류주선
경인일보 기자

세계야외공연축제 2005 경기

해마다 북한강변에서 열리던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가 올해는 '세계야외공연축제 2005 경기' (집행위원장 임진택)로 이름을 바꿔 8월 5~9일 남양주 양수리를 주무대로 열렸다. 예산 문제로 시와 갈등을 빚었던 이축제는 올해 이름을 바꾸면서 양수리 양서문화체육공원을 주 행사장으로 하고 기평, 양평, 구리 등 북한강을 끼고 있는 경기동북부 일원에서 순회공연을 여는 등 꽤 많은 변화를 줬다.

눈길을 모은 해외 참가작은 중국무술의 진본 '소림사 무예시범단'과 '한 일우정의 해'를 기념해 일본 신주쿠양산박이 제작한 〈비람의 아들〉이었다. 중국 숭산소림사 무술관광부예술단은 〈소림웅풍〉이라는 제목으로 (나한 18수) 〈심외권〉 〈역군경〉 등 소림사 무술의 진본을 선보이며 무대위를 격파했다.

국내 작품은 23개가 참여한 가운데 연희단거리패의 〈오월의 신부〉가 주목받았다. 황지우 시인의 동명시를 원작으로 국립극단 예술감독인 연출가 이운택이 만든 신작인 이 작품은 세계야외공연축제와 이운택이 만든 밀양어름공연예술축제가 형제축제로 결연, 작품을 매년 교환기로 하고 처음 시행한 초청작으로 공연됐다.

제10회 경기도사진대전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협회(회장 이수연)가 주최한 제10회 경기도사진대전에서 〈현대인의 삶과 절규〉(사진)를 출품한 황성자 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은 〈환생〉이란 작품을 낸 임병희 씨에게 돌아갔다. 8월 3일 수상작을 발표한 이번 대회의 대상작은 현대기술을 작품에 접목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고 단순한 가운데 작가 의도가 간결하게 전달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컴퓨터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우수상은 순간포착이라는 사진의 종래 개념을

극적으로 살린 작품이다. 초대 출품상은 원로작가인 김홍두 씨의 〈나선 계단〉, 특선은 이순욱 씨의 〈엄마랑 아가랑〉 등 13점이 선정됐다. 총 출품작은 288점이었으며, 입선 이상 작품은 총 129점이다. 수상작은 9월 3일부터 7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관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대안미술공간 소나무의 기획 프로그램

자연미술을 추구하며 안성시 미양면 계곡리에 문을 연 대안미술공간 소나무(관장 전원길)가 '안성예술기행-나는 예술가를 만나러 안성에 간다'라는 제목의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 지역문화계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9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직접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해 창작세계를 감상하고 작가와 함께 작업을 해보는 이색 프로그램이다.

소나무는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안성시와 시교육청, 문화관광정보센터, 푸른안성21 등 지역 기관 단체들과 함께 안성예술기행 사업단을 구성하고 장르별 참여작가를 선정하는 등의 사전작업을 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 작업실을 공개하는 작가는 정복수 전원길 박영하 안윤모 이성구 박원태 차윤숙 부부(이상 회화), 류연복(판화), 한진섭 성동훈 정해덕(이상 조각 설치), 박민수 이혜진 김한사 양상근(이상 도예), 이억배 정유정 부부(그림책) 등 17명 15개 작업실이다. 소나무는 특히 작업실 탐방시 작가의 창작세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진행요원(에듀케이터)을 선정했다.

강원소식

— 옹호선
경인일보 기자

2005 만해축전

2005 만해축전이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인제군 북면 용대리 소재 '백담사만해마을'을 중심으로 뜻깊게 열렸다. 7회 째인 올해 만해축전은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사 백담사 출가 100주년과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기념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축전 입재식에서 시상한 2005 만해대상은 달라이라마 티베트 망명정부 수반이 평화부문을 수상했고, 상은 티베트 망명정부 초펠라 동북아대사가 대신 받았다. 문학부문은 윌레 소잉카, 학술부문은 이지관 가산불교연구원장, 실천부문은 함세웅 신부가 각각 수상했다. 올해 축전에서는 한민족의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평화시인대회'가 백담사만해마을과 북강원 금강산, 서울 신라호텔 등지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올해 만해대상 수상자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시인 윌레 소잉카를 비롯 미국 계관시인 로버트 핀스키, 지난해 만해대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맥켄 교수(미국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등 해외문인 30여 명과 고은 신경림 염무웅 김지하 김남조 씨 등 국내 저명 시인, 보도진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또 '해방 60주년 학술세미나'로 세계 한민족 문학의 현주소(세계한민족작가연합회), 다시 민족문학을 생각한다(민족문학작가회의), 종교와 문학(시사랑문화인협회), 해방 60주년에 생각하는 한국문학의 정체성(한국문학연구소), 광복전후 50년 한국문학의 좌표(한국문인협회), 21세기 지식환경의 변화와 시조문학연구(한국시조학회)를 주제로 각각 열렸다.



제2회 대관령국제음악제

제2회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철원 옛 노동당사 앞 특설무대에서 광복 60주년 기념 'DMZ 평화 생명콘서트'로 막을 올려 19일까지 용평리조트를 중심으로 강원도 곳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강원도가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올해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주제는 '전쟁과 평화'였다. 이에 따라 전쟁을 동반한 인류의 지성을 회고하며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음악회로 꾸며졌다.

이번 행사에 맞춰 '전쟁과 평화'를 테마로 창작된 김진희씨의 〈한 하늘〉(One Sky)과 세계적인 작곡가 베자드 란즈비란(줄리어드 음악원 교수)씨가 전쟁과 무지에서 벗어나자는 메시지를 담아 작곡한 〈개어남〉을 세계적으로 초연해 음악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음악제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적 명성의 국내 외 음악인 40여 명과 음악학교 학생 700여 명이 참여했다.



대관령국제음악제가 국내 타 국제음악제와 차별화 되는 점은 뮤직스쿨 운영이다. 음악학교는 학생들의 음악성 개발과 연주실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인 실기연마, 마스터 클래스, 개인레슨,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을 진행했다. 지난해 현악 중심에서 올해 클라리넷, 피아노, 작곡 등 전공분야의 마스터 클래스를 추가해 폭을 넓혔다. 올해 음악학교에는 세계 17개국 19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130명이 수강생으로 최종 선발되어 줄리어드음악원 커티스음악원, 베를린예술대학 팔스버그모짜르테움 등 해외 유명 음악대학 교수들로부터 귀중한 실기와 음악인의 자세를 전수 받았다.

2005춘천인형극제

아시아 최대의 인형극제로 명성을 얻고 있는 2005춘천인형극제가 지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춘천인형극장을 중심으로 열렸다. 올해로 17회 짝인 춘천인형극제는 영국 프랑스 체코 호주 헝가리 일본 등 해외 7개국 8개 극단과 국내 80여 개 인형극단이 참가해 춘천시민들을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인형극의 세계로 안내했다.

춘천인형극제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축제를 찾은 관람객수는 10만 명 1,413명이었다. 체코의 오스트라바주립극단의 <늑대와 네가지 이야기>를 비롯 호주 크링클 씨어터의 <타이트로프> 영국의 <피기쇼> 등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인형극을 초청, 아시아 최대의 인형극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또 양말인형만들기 눈꽃만들기 재활용인형만들기 짚풀인형만들기 동화구연 등 다채로운 관객 체험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실시, 가족단위관람객들과 인형극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충청소식

이현숙
충청투데이기자

시민극장 <엄마의 치자꽃>

화제의 방송작가 노회경의 첫 데뷔작인 <엄마의 치자꽃>이 청주무대에 연극으로 선보였다. 시민극장이 제69회 정기공연작으로 무대에 올린 <엄마의 치자꽃>은 지난 2001년 강부자와 조민수의 연기에 빛났던 작품.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씨어터 제이에서 올려진 이 연극은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 문화속에서 소외와 질곡, 희생의 삶을 강요당해야만 했던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남성중심주의 문화지배라는 착취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탈취 당했던 여성들의 원초적인 생명력과 본능, 메마르고 바스라지는 삶의 양태 등을 적나라하게 들춰낸다. 이 연극은 남편의 외도로 혼자 두 딸을 키운 엄마 윤자, 아버지 없이 자라온 두 딸이 중심인물로 극중 세 모녀의 삶과 사랑방식을 조명한다. <엄마의 치자꽃>은 세 여성의 희망과 절망, 서로간의 갈등과 화해, 여성의 삶에 대한 성

찰을 속내에 담고 있다. 특히 회화적인 무대와 극의 진행 등 공간과 시간적 이미지의 강조가 관객들의 무뎠던 감각을 일깨우는 요소들이다. 각색과 연출을 맡은 김현탁 씨는 청주대 연극영화학과 출신으로 시민극장 객원연출자이며 극단 마루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연극인이다.

지역 갤러리 국제무대 부상

충북지역의 무심갤러리와 무심갤러리가 메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UM갤러리가 해외 아트페어에 선정되는가 하면 화랑전에 초대되는 등 국제무대로 부상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무심갤러리와 UM갤러리가 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4~5년 전부터.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지난해부터다.

무심갤러리는 지난해 5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북경아트페어'에 우리나라 화단의 대표적인 회화작가 박서보 씨를 비롯해 김태호 씨와 박영하 씨를 선정해 참가했다. 북경아트페어에서 호평을 받아 같은 해 11월 북경에서 열린 <북경화랑초청전>에 초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UM갤러리는 같은 11월 중국상하이에서 개최된 '상하이 아트페어'에 충북지역 작가들과 함께 참가했다.

UM갤러리는 올해에서도 지난 5월 '중국북경아트페어'에 회화작가들과 함께 참가했으며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시카고 아트페어'에 선정되어 충북지역 작가들과 함께 참가했다.

이외에도 UM갤러리는 '시카고 아트페어' 참가 이후 스페인 마드리드의 갤러리 네이브 페란쯔와 미국 뉴멕시코의 개논로드 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초대 콜을 받기도 했다. 한편 무심갤러리와 UM갤러리는 오는 11월 중국 '상하이 아트페어' 참가를 비롯해 캐나다 '토론토 아트페어'와 2006년 스페인 화랑가를 노크해 볼 계획으로 있다.

국립청주박물관 <해방공간의 도서들> 특별전

국립청주박물관이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8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청명관 기획전시실에서 <해방공간의 도서들>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 속에 잊혀져

가는 해방공간의 사상과 정서를 출판물을 통해 당시의 사상과 시대정신을 조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전시작품은 1945년부터 50년에 발간된 출판물로 독립운동 관련도서, 교과서, 역사서, 문학서 등 도서와 문헌자료 350여 점이 선보였다. 출판자료는 시집, 소설, 수필과 같은 문학서를 비롯해 독립운동, 정치사회 역사 국어 철학 종교에 이르기까지 장르가 다양하다. 또한 출판물의 종류도 단행본, 논문집, 사전, 잡지 등 발간 형태가 여러 가지이다. 주요 출판물로는 『조선독립순국열사전』 『대한독립운동과 임시정부투쟁사』 『도왜실기』 『정지용 시집』 『백록담 정지용』 『조선오천년 흥망사』 『한글의 바른길』 『함스영겔스예술론』 『소년역사독본』 『정치상식문답』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자료는 독립운동 관련도서와 역사서들로 3·1운동, 임시정부 등에 관한 가장 초기의 출판물로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대구·경북소식

이경달
매일신문 기자

광복 60주년 기념 문화사 60년 대구전

대구 문화 태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구 문화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광복 60주년 기념 문화사 60년 대구전>이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렸다. 광복 60주년 기념 문화사 60년 대구 준비위원회·대구MBC가 주최하고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대구경북역사연구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구의 문화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광복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 새로운 대구 문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광복 60주년 기념 문화사 60년 대구전>은 주제관 전시행사를 비롯, 부대행사, 시민 참여행사로 꾸며졌다. 주제관 전시는 시대별 테마로 구분한 <씨뿌린 사람들> <뿌리내린 사람들> <희망 대구, 평화 한국> <대구, 대구아카이브>로 구성됐다. <씨뿌린 사람들>은 1920~1950년대 대구 문화가 태동해 격동의 세월을 헤쳐나오는 과정을 담았다. 1960~1990년대 시대

상을 다룬 <뿌리내린 사람들>에는 한국 모던 아트의 시작, 유신시대의 침묵, 민족민중 문화운동, 개발과 성장에 따른 그림자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작품이 전시됐다.

또 해방 이후 제작된 한국영화 등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됐다. 13일 1948년 작품인 무성영화 <견사와 여선생>, 14일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16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17일 <망나니 비사>(1955년), 18일 <피아골>(1955년), 19일 <자유부인>(1956년)이 상영됐다. 시민참여행사로써는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오래된 가족사진, 기록물, 문화유산, 공문서, 증빙자료 등을 공모 전시하는 <나의 문화사 산책>이 열렸으며 전시자료 중 1980년대 판화 작품을 관람객들이 직접 한지 및 옷에 찍어 가져가도록 하는 '판화체험' 등이 열렸다.

제18회 전국민족극한마당

'제18회 전국민족극한마당'이 8월 4일부터 7일까지 경북 성주군 성밖 숲 일원에서 개최됐다. 4일 오후 6시 길놀이와 열림굿, 극단 갯돌의 <남도천지잡> 등으로 꾸며진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식참가작 11편을 비롯해 초청공연 6편, 자유참가작 3편 등 모두 20개 작품이 공연됐다.

중·일 번역시집 '대구의 시조' 발간

대구시조시인협회가 시조시인 46명의 작품을 중국어와 일본어로 번역한 『대구의 시조』(목원예원)를 발간했다. 수록작품은 민병도의 <풍경>과 문무학 <숲의 문법>, 정재익 <겨울바다>, 류상덕 <그리고 별리>, 박기섭 <춤>, 조영일 <겨울산을 오르며>, 노중석 <산은 아직>, 이정환 <현사>, 정경화 <모과>, 이솔희 <도산서원에서> 등 46편이다.

경남소식

경남동육
경남일보 기자

'거창 국제연극제' 수송대 일일시 20일간 199회 공연

제17회 거창 국제연극제가 거창 수송대 내 돌담극장에서 지난 7월 29일 오후 7시 개막식을 갖고 20일만에 걸쳐 연극의 향해를 시

작했다. 개막식에서 이종일 집행위원장은 "많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경남지역의 관광 명소인 수송대에서 피서를 즐기면서 다양한 장르의 연극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성의 숲에 꽃들이 피어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거창국제연극제는 국내외 9개국 총 45개 단체가 참여해 국내외 공식초청작, 기획공연, 국내 경연참가작 부문으로 나눠져 총 199회의 공연을 마련했다. 이번 연극제에는 실험극과 가족극, 마당극, 악극, 국악 뮤지컬 등 다양한 연극 장르와 초청 강연회, 학술세미나, 연극 아카데미, 베를린 레벤스레움 무대미술전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되었다.

지난 8월 8일 오후 10시 집행 위원장실에서 극단 춘추의 대표 문고현씨(연출가)의 사회로 극단 미학의 대표 정일성씨, 한국 연극평론가협회 심재민 이사, 극단 시나위의 대표인 박상규씨(부산시립극단 배우), 그리고 이종일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 국제연극제 발전 방향에 대한 대화를 가졌다. 이날 거창 국제연극제 공연작, 관객층의 호응도, 세계 연극제 지향을 위한 개선점, 해외 공식초청작 홍보, 공연작들에 대한 학술적 지원 장치 필요성 등에 관해 2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가족단위로 찾는 거창 국제연극제의 경우 장르에 대한 정보나 상세 설명이 부족해 연극이 공연되는 중간 중간에 아이들을 동반한 관객들이 시간이 갈수록 객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토론 참여자들의 생각이었다. 그 대안으로 성인극, 희 비극, 가족극 등 장르에 대한 관객들의 변별력을 높이고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관객들이 작품 선택에 지표를 될 수 있도록 평론가들의 평이나,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를 티켓이나 팸플릿 등에 표시하고 장르별로 극장을 세분화시키는 방안들도 제시됐다.

또한 극장마다 소음 문제로 관객들에게 연극 작품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배우들의 연기 집중에도 방해가 되어 참여 극단 연출가나 관계자들의 사전 단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거창 국제연극제는 집중적으로 투자해 발전시킬 시기"라며 거창 국

제연극제에 보다 많은 관객들을 유치하고 세계적인 연극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창 국제연극제만의 메인 이벤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TIMF양상블' 세계무대로 공연

지난 2001년에 창단된 통영국제음악제의 상주 악단인 TIMF양상블이 올해도 아시아와 유럽 등 현대음악의 세계무대에서 공연을 펼친다. TIMF양상블은 8월 8일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제25회 ACL페스티벌과 9월 중순께 폴란드에서 열리는 제48회 바르샤바 가을페스티벌에 초청됐다.

8월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ACL페스티벌은 현재 12개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작곡가들로 구성된 아시아작곡가연맹(Asian Composers League)이 참가국을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는 음악제(이하 ACL페스티벌)로서 올해로 25회를 맞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지난 79년, 93년, 2002년에 열렸다. 올해 태국에서 열리는 ACL페스티벌에서 TIMF양상블은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부문 등에서 6명이 참여하며 8월 10일 오후 7시 출라롱콘 대학에서 공연한다.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중부 유럽 폴란드에서 열리는 2005바르샤바 가을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23일 파브리카 트리치니 극장에서, 24일 국립 필하모니 실내악 홀에서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는 TIMF양상블 단원들 중 10여 명이 참여하며 지난 통영국제음악제에서 개막공연을 가진 바 있는 위디거본의 지휘로 이범석씨의 <오보에 & 피아노 듀엣>과 신수정씨의 <빈 곳으로의 부터>가 초연된다.

밀양 여름공연축제 막내러

제5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가 지난 7월 31일 막을 내렸다. 16일 개막작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허너>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올해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16일 간의 일정으로 국내외 공식 청작 7편과 젊은 연출가전 11편, 대학극 9편, 기획공연 5편, 연희단거리패 고정 레퍼토리 3편 등 총 35편의 작품들이 밀양연극촌 내 숲의 극장, 우리동네 장, 스튜디오극장 등의 실내극장과 남천

강을 배경으로 하는 강변극장에서 선보였다. 젊은 연극인들의 실험적인 무대인만큼 올해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의 주제는 '접촉'(Contact)이다. 동서양의 젊은 연극, 서양 고전과 한국공연의 만남, 자연과 함께 하는 관객과의 만남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함께 하는 올해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접촉'이라는 주제와 어울리게 공식 초청품들 중 해외 연극인들과 국내 연극인들의 합동작품들이 대거 선보이고 한일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연극(인어전설)로 알려져 있는 재일교포 김수진씨의 신주쿠양산박 공연이 남천강변 무대로 만들어진 천막극장에서 이들 동안 펼쳐졌다.

제4회 젊은 연출가전과 제1회 젊은 대학극전 시상결과는, 젊은 연출가전 대상에 극단 공연배달 서비스 간다의 <거울공주 평강이야기>를 비롯해 연출가상에 민준호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남자연기상에 볼프 <어느 지하생활자의 수기>, 여자연기상에 박민정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무대예술상에 극단 장자번덕<태>, 관객이 뽑은 인기상에 서보익 <당신의 의미>씨가 선정됐다.

대학극전 대상은 극동대 연극연기학과 <트로이의 여자들>을 비롯해 앙상블상은 동서대 뮤지컬학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연희과 공동 수상, 희곡상은 전진모 <그린 타블렛> (연세대 사회과학대 극회), 무대예술상은 전주대 영상예술학부 연극과 <춘풍의 처>, 신인연기상은 박운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아가씨와 건달들>이 받았다. <어머니> <오구> <오월의 신부> 등 이운택 감독전에는 주연배우 손숙과 강부자가 직접 작품에 출연을 했으며, 23일에는 시인들이 참석해 연극과 시 그리고 춤의 절묘한 어울림의 세계로 관객들과 함께 했다.

기획공연으로 극단 가미골의 <로미오를 사랑의 줄리엣의 하나>, 연희단거리패의 <울고 있는 저 여자> <푸른하늘 은하수> 어린이 명창무대와 어린이극<토끼와 자라>등이 선보였다. 또한 축제가 열리는 동안 매년 실시된 워크숍에서 올해는 헤르게 무지알, 남궁호, 양승희, 이운택 감독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배우 무용가를 위한 신체훈련과 마임연기, 숨의 형이상학 등으로 18~23일, 25~30

일 두 차례 기성배우와 신인연기자들을 위해 마련했다. 올해는 도자기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부채에 그림 그리기, 장승깎기 등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 학생들이 밀양의 공예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기획되었다.

경남무용제 '진주 얼무용단' 최우수상

진주 얼무용단(안무 김주상)의 <의암에 핀 이슬꽃>이 제6회 경남무용제 최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의암에 핀 이슬꽃>은 의암에 우뚝 선 논개의 절의를 춤으로 표현한 것으로 왜군의 침략으로 무참하게 무너지는 진주성과 함께 처절한 최후를 맞는 최경희 장군을 그린 작품이다. <침략> <연희> <이슬꽃> <제> 등 총 4장의 구성으로 최경희 장군의 죽음과 왜군의 침략으로 피로 물든 조국산천, 그리고 수청과 절개의 갈림길에서 복수를 다짐하는 논개의 정절과 그 의미를 20여 명의 단원들이 출연해 춤사위로 표현했다. 우수상에는 거창 천일무용단(안무 이명선)의 <미녀봉의 전설>이, 개인상인 안무상은 <진주 얼무용단>의 김주상씨가 받았다. 한편, 최우수상을 수상한 진주 얼무용단의 <의암에 핀 이슬꽃>은 9월 5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14회 전국무용제 경남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부산소식 고기화 국제신문 기자

교류의 뱃길 100년 행사

한일 문화교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조선 통신사 행렬이 부산~시모노세키 뱃길이 열린 지 100년이 되는 올해를 기념해서 일본에서 재연됐다.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길집행위원장, 강남주 전 부경대 총장)는 조선통신사의 맥을 잇는 '교류의 뱃길 100년' 행사를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오가며 연다. 8월 19~22일에는 '가는 뱃길' 행사로 부산이 시모노세키로 가고, 9월 8~11일에는 '오는 뱃길' 행사로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을 찾는다.

'가는 뱃길'에는 부산 문화예술단체와 '부용회' 회원 9명이 참가했다. 부용회는 일제강

점기 말기 한국인과 결혼해 부산으로 이주했다가 1945년 일본이 패망한 뒤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부산에 정착해 살고 있는 여인들의 모임이다. 평균 연령이 80세를 훌쩍 넘는 이들은 부산지역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뜻깊은 고국 방문의 기회를 가졌다.

통신사의 행로를 따라가는 방문단은 20~21일 일본 시모노세키 비칸마쓰리에 참가해 화려했던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연했다. 부산정 보여고 취타대와 부산의 풍물패 영산마루, 일본 쪽 참가자 등 135명이 참가하는 행렬 재연은 400여 년 전 일본에 문화적인 새 바람을 일으켰던 조선통신사의 멋과 위용을 선보였다. 방문단에는 패션모델 14명도 동참해 비칸마쓰리에서 조선통신사 복식패션쇼를 펼치기도 했다. 비칸마쓰리는 시모노세키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해마다 관광객 35만여 명이 찾는 대규모 행사다.



광복 60주년 일제강점 희생자 위령제전

<광복 60주년 일제강점 희생자 위령제전>이 8월 27~28일 부산에서 열린다. 백산 안희제선생 독립정신계승사업회가 주최하는 위령제전은 부산뿐 아니라 전국의 관련 단체들이 폭넓게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나눔의 집,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14개 단체가 추진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민족예술로 역울한 일제강점 희생자들의 한을 씻는다'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7일 '광복60주년 평화걷기대회'로 시작한다. 걷기대회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해운대 백사장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어 오후 4시 해운대 백사장에서 '광복60주년 청소년 문화한마당'이 열리고 오후 6시

부터는 중요한 행사인 '제7회 정신대 해원 상생대동굿' 이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정신대 해원 상생대동굿은 동해안별신굿(중요무형문화재 제82-가호)을 중심으로 열림굿과 시 음악 노래 춤이 어우러지는 7개의 작은 마당으로 이뤄진다. 28일에는 '우키시마호 희생자 위령굿' 이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연안여객터미널 옆 친수공간 수미르공원에서 열린다.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던 한국인 징용자 2,500~5,000여 명이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22일 우키시마호라는 배를 타고 귀국하던 중 배가 폭발 침몰하면서 탑승자가 대부분 희생당한 사건이다. 주최측은 이날 수미르공원에서 우키시마호 희생자 위령비를 제작한다.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BIKI)가 8월 16일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김상화 부산예술대 교수)는 이날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2006년 5월 5일~14일 제1회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에 앞서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기간인 오는 10월 7일~11일 부산 지역 상영관 등에서 세계 6개국 3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프리페스티벌을 열기로 했다. 내년 어린이날에 맞춰 개최되는 제1회 영화제는 세계 30개국 150여 편의 어린이 가족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광주소식

박진현
광주일보 기자

제1회 광주 정율성 국제음악제

'중국의 악성'으로 불리는 광주출신 고 정율성(鄭律成 1914~1976) 씨의 예술혼이 올 가을 광주에서 되살아난다. 광주시 남구와 중국 문화부는 8월 4일 오전 남구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1월 11~12일 이틀간 <제1회 광주 정율성 국제음악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남구는 일단 첫째인 올해는 고인의 숭고한 예술세계를 세상에 알린다는 의미에서 한

국과 중국만이 참가하는 소규모 행사로 치러지되, 내년부터는 동아시아, 3년 이후에는 아시아 유럽 구미권으로 행사규모를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정율성 선생은 중국 인민해방군가인 <팔로군 행진곡>과 중국의 아리랑으로 불리는 <엔안송>등을 작곡한 중국의 대표적 작곡가. 중국 국민의 80% 이상이 그의 노래를 한 곡 이상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며 중국에서는 위대한 음악가인 동시에 항일 투쟁가이자 혁명가로 추앙 받고 있다.

이번 음악제는 고국에선 잊혀진 이름이 된 정율성 선생을 부활시키고 더불어 한국과 중국,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 간 문화의 가교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지난 2003년부터 음악제를 추진해온 조직위원회는 8월 3일 서울 한국의 집에서 노동은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한 데 이어 정율성 선생의 딸 정소제 여사, 이간용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연술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등 12명을 조직위원으로 선임했다.

국비 시비 구비 등 모두 6억여 원의 예산으로 치러지는 이번 음악제는 정율성 선생의 대표 곡을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독창곡, 합창곡, 관현악곡 등 그가 남긴 다양한 곡들이 연주되며 추모사진전, 학술대회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합창단, 광주시립교향악단, 광주소년소녀합창단,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박선영, 베이스 김명지, 피아니스트 임미정 등이 참가한다. 또 작곡가 김대성 씨가 정율성 선생을 테마로 해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이 임미정 씨의 협연으로 초연된다. 중국 쪽에선 중국교향악단합창단과 지휘자 엄량곤씨(嚴良坤) 등 중국의 유명 음악인들이 참가한다.

국립남도국악원 8월 무대

전남 진도 임회면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영도)의 8월 <젊은 국악축제> 두 번째 무대가 12일 오후 7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건우와 직녀가 1년에 한번 만난다는 '칠석'(11일)과 '말복'(14일) 절기를 맞아 오작교의 아름다움을

연상케하는 부채춤과 애절함을 느끼게 하는 해금 산조, 그리고 막바지 더위를 식혀줄 사물놀이 '판굿'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기악합주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 가야금병창 <죽장망해>, 흥보가 중 <중타령>, 민속무용 <살풀이>, 민요 <각시풀> <남해바다> 등이 연주됐다. 박영도 국립남도국악원장은 "이번 무대는 사랑과 해후의 아름다움을 연상시키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절기공연이다"며 "민족 음악을 통한 사랑과 해후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역사 속의 현장과 인물전

광복 60주년을 맞아 나라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뜻깊은 전시회가 마련돼 관심을 모은다. 나인갤러리(관장 양승찬)는 8월 15일~9월 3일까지 광복 60주년 기념 특별기획 <역사 속의 현장과 인물>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애국지사들의 역사 의식과 시대정신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1905~1945년까지 역사의 현장과 독립운동정신, 그리고 역사 속의 인물들을 주제로 한 회화 조각 설치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선보인다.

조각가 고근호 씨는 유관순 안중근 김구 윤봉길 김좌진 장군 등 독립운동가의 모습과 당시의 현장을 하나의 사각기둥에 형상화한 <역사의 기둥>을, 서양화가 김규완 씨는 유관순 누나를 소재로 팝아트의 대가 앤디워홀의 작품 <마블린 먼로>를 연상케 하는 작품을 내놓는다.

김동하 씨는 1895년 일본자객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명성황후의 삶을 주제로 한 <나 거거든>, 이민하 씨 역시 명성황후 시해사건의 비극과 진실을 함께 보여주는 <아! 명성황후>를 선보인다. 조각가 김숙빈 씨는 대한민국의 민족정기를 말살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산천 곳곳에 쇠말뚝을 박았던 일본의 만행을 고발한 <흔적>을, 김정연 씨는 위안부를 통해 식민지의 아픔을 드러낸 <어느 위안부의 절망>을 출품한다.

또한 서양화가 김호원 씨는 전봉준 장군을 상징화 한 나무를 통 오늘날 농촌문제를 클로즈업시킨 <천지인>을, 한국화가 장현우 씨

는 한국인의 기개를 전 세계에 보여준 고 안중근 의사의 항일정신을 고스란히 담은 <대한민국>을 각각 선보인다. 이와 함께 전시기간 동안 관람객들을 위해 일제시대의 영상을 미디어 아트로 제작, 상영할 예정이어서 방학을 맞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유익한 체험학습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 도깨비 마을 사람들

할아버지로부터 들던 전래이야기 속 도깨비를 직접 보고 만지면서 무한한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동심의 나라가 마련된다.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회장 채희운)는 <섬진강, 도깨비 마을 사람들>(총장 아동문학가 김성범)을 꾸려 문화소외지역 어린이의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개발 보급 전승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작업에 돌입했다.

지역활성화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3년 동안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갈수록 메달라 가는 어린이들의 감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 채록반을 비롯해 동화구성반, 동화구연반, 동요반 등 4개 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지역에 묻혀있는 문예창작과나 피아노과, 국악과 등의 출신자, 광주 동화 읽는 어른모임 단원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등 인적자원이 풍성한 것이 특징.

각 반을 이끌 담당들은 김학근(전 곡성문화원장), 손장을 맡고 있는 아동문학가 김성범, 정재완(YMCA 강사), 조윤봉 씨(컴퓨터 음악 전문가) 등으로 해박한 지식과 오랜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도와 실습을 통해 어린이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전북문인협회와 민족문학의 정신을 추구하는 전북작가회의 등 보수에서부터 진보에 이르기까지 전북은 두터운 문학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적 질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학관 건립과 문학인 조명사업 등은 문학을 마니아층이나 식자층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시선 때문에 그동안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해방 60돌이 되는 올해, 도내 문학인 조명 사업이 활발하다.

현재 전북에 세워진 문학관은 군산의 채만식 문학관과 고창의 미당시문학관, 김제 아리랑 문학관, 남원 혼불문학관 등 4곳. 조만간 전주 최명희문학관과 부안 석정문학관, 무주 김한태문학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남원 혼불문학관에 이어 오는 12월에는 전주 최명희문학관이 완공된다. 한옥마을 500평 부지에 14억을 들여 건립 중인 최명희문학관은 완공 이후 12개월 이내 개관할 예정이다. 혼불문학관 보다 규모는 작지만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며, 작가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주로 예비문학생과 일반인들을 위한 문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석정문학회가 전북문협, 전북작가회의와 공동으로 추모 문학제를 열어 이슈화시켰던 신석정문학관 건립도 가시화됐다. 10월까지 석정문학관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무리,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부안읍 선운리 일대에 세울 예정이다. 그러나 8 15를 전후로 친일 문학인들에 대한 시선은 더욱 냉랭하다. 뛰어난 문학적 업적을 친일 행적이 율아매는 경우다.

서정주와 채만식은 친일 문학인 논란에 있어 늘 정점에 있어왔지만, 이미 자치단체에서는 문학관을 세우고 각각 '국화꽃 축제'와 '채만식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와 광복회 전북지부 등 도내 34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친일청산을 위한 전북 시민연대'는 서정주와 채만식 등 친일 문학인에 대한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적 합의와 역사적 평가 없이 이뤄지고 있는 친일 문학인 기념사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2003년부터는 전북작가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북

문학박물관' (가칭)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이 배출한 문학인과 문학의 배경이 된 지역적 특성을 기리기 위해 지역의 문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종합적 성격의 문학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설가 최기우 씨는 "문학관의 경우 대부분 작가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한 소극적 전시에 그치고 있으며, 개별 작가나 개별 작품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전북 문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조망하고 지방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종합적 성격의 문학관을 갖는 것은 추후 난립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문학관 건립 사업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완주군에서 15세기 분청자 가마터 발굴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에서 15세기 중엽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분청자 요지가 발굴됐다. 지난 4월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해 온 (재)전북문화재연구원(원장 최완규)은 (주)OK가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산 80번지(화심온천 뒷편) 일원에 건설하는 대중골프장 부지에서 분청자가마 1기와 소형가마 11기, 분청자가마와 관련된 폐기를 퇴적구 등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길이가 33.4m에 이르는 분청자가마의 경우 현재까지 한국인에 의해 발굴 조사된 국내 10여 기의 분청자가마 중 길이가 가장 긴 것으로 판단됐다.

지금까지 국내 최장 가마는 1927년 조선총독부 야수건이 계룡산 일원에서 발굴한 분청자가마 5개 중 49.5m 길이의 가마로 알려졌다. 최근 호암미술관과 공주박물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구조와 규모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그 결과에 따라 화심리 가마 길이가 국내 최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은 분청자, 조선백자, 조선청자 등으로 유물의 문양과 기종이 다양하며, 여러



전북소식

도 휘 정
전북일보 기자

문학의 땅 전북, 문학인 조명사업 활발

전북의 땅은 문학의 땅이다. 이병기 신석정 채만식 김해강 서정주 백양촌 김창술 최명희 등 문학의 대가들을 배출했고 고은 윤희길 양귀자 은희경 등을 길러냈다. 최승범 허소라 서정인 정양 김용택 이병천 안도현 등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작가들은 여전히 이 땅에 뿌리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600명

가지 명문이 음각 또는 도장으로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사명(官司銘) 중 관청이름 '내심'(內贖)이 출토돼 화심리 가마가 공납용 자기를 생산했던 중요한 가마였다는 추정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김종문 책임연구원은 "화심리 유적은 15세기 중엽 경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선시대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 공납을 주로 했던 중요 유적으로 가마운영 시기, 가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을 규명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심리 유적은 원주군에서 최초로 발굴된 가마터. 부안 우동리와 고창 수동리, 고창 용산리 유적 등과 유물 양상을 비교, 앞으로 전북 지역의 도자사를 연구하는데 유용한 학술자료로 기대되고 있다.

2005부안영화제 '여성과 환경-아줌마 지구를 지켜라'

반핵 투쟁이 끝난 부안은 조용했다. 1년 전 거리마다 휘날리던 반핵 깃발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고, 영상관광도시 부안을 알리는 홍보물만이 간혹 눈에 띄었다. 부안성당 소성당에 검은 비닐이 쳐졌다. 안으로 빛이 새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부안영화제 조직위는 올해도 부안에서 유일하게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예술회관 사용 허가를 군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했다. 극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스크린이지만, 상영장 안에는 80여 명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았다.

영상테마파크와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 등 영상에 많은 투자를 하고있는 부안군에서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영화제는 자치단체의 외면 속에서 열리고 있었다. 그래도 열정만으로 준비한 초라한 상영장을 탈탈 이들은 아무도 없다.

극장 하나 없는 부안은 올해도 곳곳하게 환경운동과 지역영상운동의 의미로서 부안영화제를 치러냈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안성당에서 열린 2005부안영화제 '여성과 환경-아줌마 지구를 지켜라'. 올해 상영작은 24편이며 환경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여성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 몇 편을 섞었다. 안창규 프로그래머는 "해결기장 문제와 연결돼 운동의 성격이 강



했던 지난해 영화제에 비해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올해를 환경영화제로서 부안영화제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황토염색과 숯염색, 대안생리대 체험관 등 부대행사도 여성과 환경이란 테마에 충실했다.

<내 어린날의 학교> <조은이의 일기> <땅은 숨쉬고 싶다> <동> <자연으로 돌아가다> <함께 만들어 봅시다> 등 부안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주민공모작 상영은 지역 영상활동기반의 토대가 될 것이다. 부안 사람들은 큰 영화제를 바라지는 않는다. 어렵지만 스스로 만들어가는 영화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14일 계획도 갯벌에 스크린이 설치됐다. 폐막작 <계화갯벌>(女戰士傳)이 갯벌에 기대어 사는 여성들의 삶을 다룬 것인 만큼 직접 계획도에 들어가 상영했다. 관객들은 속 깊은 갯벌과 바다의 짠 내음을 안았다. 아름다운 부안, 건강한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다.

한국화가 유기준 씨 개인전 <현재진행형>

사람들의 얼굴 위로 수많은 사연이 스쳐지나간다. 굵게 패인 주름 하나, 뿔어질 듯 어딘가를 응시하는 눈빛 하나, 그들의 삶은 작품속 주인공과 작가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얼굴들은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그리고 마치 나인 것처럼 다시 나에게로 이어지는 삶의 순환이다.

한국화가 유기준씨(31)의 첫 번째 개인전 <현재진행형>이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전주 서신갤러리에서 열렸다.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35세 미만의 젊은작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신갤러리의 젊은 시각전이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 내 감정을 담기에는 역

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인물 안에 네 시선이나 내적인 것들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가 그린 인물들은 인간의 존재와 삶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힘겨운 삶과 고통은 낡은 벽과 벗겨진 페인트, 녹이 슬어가는 고철 등으로 전이되어 있었다. 담담하게 풀어내는 수묵은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과 닮아있다. 수묵과 한지의 생명력을 좋아한다는 그는 전통 초상화 기법을 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나 혼자 뒤떨어진 생각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망설였어요. 그러다 다시 나를 추스르고 보니 쉽고 어렵고 고생스러움이 아닌, 내 개성을 작품 속에 드러내지 못함이 문제였어요." 세월이 선 하나 하나를 사실적으로 그려나가는 작업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이 든다. 유씨는 "아직은 젊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굴 위해 작업을 하는 건지 고민을 했어요. 예술을 위한 예술이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 작업을 택했죠." 어렵지도 무겁지도 않은 주제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이지만, 그는 그 풍경들 앞에서 사람들이 그저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예원예술대를 졸업한 유씨는 현재 예원대 문화예술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광복 60년 쌀로 돌아본 아픈 과거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회장 송만규)가 일제 잔재청산과 함께 한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염원하는 '제2회 민족예술제 및 2005 광복60주년 기념 전북문화제'를 열었다.

지난해 처음 8·15민족예술제를 열고 민족 예술을 통한 도민들의 화합마당을 이끌었

던 전북민예총이 올해는 우리에게 각별한 의 미로 다가오는 '광복 60주년'을 문화행사로 풀어냈다.

문화제의 캐치프레이즈는 '바로 선 나라 함께 하는 땅'이지만 개별행사의 주제는 '쌀'이다. 쌀(식량)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평화와 갈등의 핵심요소. 전북은 지금도 쌀 수탈 산물이 도처에 남아 있을 정도로 일제 강점기 군량미 수탈의 최대 피해지역이다. 민족 생존 및 독립의 핵심인 쌀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 민족의 통일문제까지를 문화행사에 담아냈다. 문화제는 8월 8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달여 동안 전시, 공연, 기행 등 다양한 릴레이 문화행사로 진행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전시행사. 미공개된 전북 지역 쌀 수탈사건과 관련시설의 현재의 모습을 담은 <쌀수탈사건전>과 미술분과 회원들의 설치미술을 중심으로 한 '쌀 수탈 박물관'이 열렸다. 통일예의 염원을 담은 <깃발 서예전>도 문화제 기간동안 덕진공원 하늘을 메웠으며, 한국은 물론 일본 초총련과 중국 조선작가, 북한 고려서예연구회 회원 등 <광복 60주년 기념 한민족 서예 교류전>도 열렸다.

전북지역 내 10여 개 풍물패가 참여한 통일 대동굿과 일제수탈사를 통해 과거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집체극 <바로 선 나라 함께 하는 땅 공연>, 문학기행 『광복 60주년 다시 찾아가는 군산항 기행』 역시 전북 땅에 서려있는 우리의 역사를 담아냈다. 송만규 회장은 "청산해야 할 일제잔재가 많고 그로 인한 갈등도 여전하며, 통일과제까지 안고 있는 민족의 현실을 볼 때 광복 60주년을 의미 있게 맞아갔다는 생각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문화공간 씩 '찾아가는 미술관'

'나도 할아버지가 생겼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었는데 갈 곳이 생겼고, 바쁜 엄마 아빠 대신 인자한 할아버지가 생겼다.' 시루떡으로 만든 우리 동네. 김이 모락 모락 나는 시루떡을 나눠먹는 동안 경로당 할아버지도, 공부방 어린 꼬마도, 활짝 웃었다. 문화공간 씩이 '찾아가는 미술관' 징검다

리 놀이터'를 열었다. 문화공간 씩은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는 곳. 미술평론가 구혜경 씨와 미술가 채성태 씨가 올 초부터 대안공간으로 준비, 지역의 젊은이 12명과 함께 도내 6개 공부방을 찾아 나섰다.

상반기에 찾아가 공부방은 서신동 어린이보호재단(7월 3일)과 삼천동 나눔지역 아동센터(7월 29일), 완산동 전주푸른학교 나무네(7월 30일). 틀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놀이와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시간이다. 흰색에 여러가지 색을 혼합해 전통 오방색을 배워보는 '조물락 조물락 하얀세상', 떡으로 만든 우리 동네를 경로당 어른들과 나눠먹는 '우리동네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짝이 되어 서로의 초상화를 그려보는 '우리는 짝꿍!', 할아버지와 만든 연을 꿈과 함께 날려보는 '할아버지 손은 오솔 손' 등 공부방 근처 경로당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세대간의 거리를 좁히고 허전한 마음도 따뜻하게 채워줬다. 대나무 물총 놀이와 공주머니 놀이, 제기차기 등 행사 중간 중간에 잃어버린 우리 놀이를 찾는 시간도 마련했다.

전북도립미술관을 찾아가 미술관을 아이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보는 '미술관 여행-보았니? 보았니?'와 모악산 자락의 햇빛과 물, 나무, 열매, 돌, 흙 등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재료로 설치작품을 만드는 '자연 속의 미술체험'도 진행했다.

구혜경 씨는 "까불기만 하던 아이들이 경로당 어른들을 마주대하니 예절이 저절로 배어나오고 어둡던 마음도 한결 밝아졌다"며 "마음 한 구석이 쓸쓸했던 공부방 아이들과 경로당 어른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되는 따뜻한 관계를 맺게되어 흐뭇하다"고 말했다. 매달 넷째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하반기 전주 동산동 회복지역 아동센터와 송천동 나눔지역 아동센터, 노송동 나눔지역 아동센터를 찾아가는다. 아이들의 결과물들을 모아 12월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전시도 열 예정이다.

제주소식
- 강태유
제민일보 기자

제2회 바람예술축제

일본 제국주의의 수명이 다해질 무렵, 일본은 본토방어를 위해 제주를 최후 결전지로 삼아 섬 곳곳에 진지동굴 등을 구축했다. 이름하여 '결(決)-7호 작전'. 이 작전은 다행히 시작을 보지 못하고 끝이 났으나 일제가 파놓은 진지동굴은 지금도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채 찾아오는 이에게 아픈 전쟁의 상흔을 드러내고 있다. 이 아픈 제주 역사의 현장에 지난 8월 13일~21일 평화의 깃발이 나부꼈다. 제주섬아트문화연구소가 제주도 남군 송악산 진지동굴일대와 성산일출봉에서 '결(結)-7호 작전'을 주제로 벌인 '제2회 바람예술축제'.



제주섬아트문화연구소(소장 김해군)와 제주 바람예술축제조직위(대회장 양영식)가 주최하는 제2회 바람예술축제는 광복60주년과 '제주평화의 섬 지정' 원년을 맞아 제주의 일제 유적지를 돌아보고 한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중의 하나를 기억하는 행사다. 축제는 일제 잔재들, 송악산 진지동굴과 알뜨르 비행장의 비행기 격납고, 송악산 동편 해안에 위치한 일본해군 자폭용 어뢰동굴까지 옥쇄의 현장인 이곳에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 문화를 통한 평화 울림의 계기로 마련됐다. 축제에는 국내의 작가 150여 명이 만든 설치·영상·깃발미술을 송악산 일대에 전시하고 성산일출봉 분화구에서 민족을 상징하는 '달' 띄우기 프로젝트(작가 전수천)를 벌였다.

깃발전에는 해외작가 26명·도내 서각인 32명·국내작가 70명·학생 200여 명의 창작깃발이 전시됐다.

2005 제주국제관악제

제주가 관악의 금빛 물결이 출렁거렸다. 제



주시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위원장 고봉식)가 주최한 '섬, 그 바람의 울림' 2005 제주국제관악제가 지난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내 일원에서 열렸다. 개막일인 12일 오후 8시 제주해변공연장에서는 공군군악대와 독일의 MV 바이스부호, 코칼리리제즈앙상블이 쉼썩한 관악의 울림으로 축제의 서막을 연 이후 9일간 제주는 관악의 선율에 빠져들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제주국제관악제는 밴드 축제로 개최되며 우리나라를 비롯, 11개국에서 2,8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해 제주도문화예술포럼 대극장과 한라아트홀 대극장, 제주해변공연장, 서귀포시 천치연 야외공연장을 순회하며 80차레가 넘는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축제에서는 행사기간 내내 매일 오전 11시 제주도문화예술포럼 대극장에서는 '열한 시콘서트'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고, 관악기 수리코너와 관악기 전시, 제주춤공연, 축제 사진전시, 제1회 대한민국 동호인 관악단 경연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축제의 분위기를 돋웠으며 15일에는 시가퍼레이드와 환영행사로 꾸러지는 '제주의 밤'이 열려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변시지, 삶과 예술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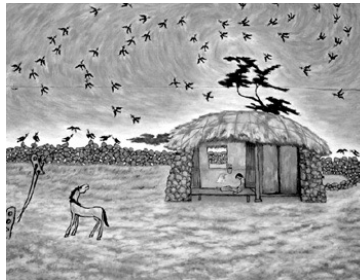
그것은 광포한 바람. 까마귀떼 울부짖는 마을 위로 폭풍전야에 몰아닥친 흠바람이다. 그 날선 휘몰아침을 온 몸으로 받아내면서 제주의 바람과 곱부른 바다를 기억하고 그 바람 속에 흐르는 척박한 이야기를 화폭에 담아온 이가 제주 출신의 세계적인 화가 변시지(80) 씨다.

지난 8월 6일부터 11월 4일 3개월간 서귀포시 기담미술관이 특별기획전으로 마련한 <변시지, 삶과 예술展>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그간 기담미술관 명예관장으로 재직하며 지역문화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변시지 화백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뤄진 것. 이번 전시는 작가의 고향인 서귀포에서의 첫 개인전일 뿐만 아니라, 그의 대표적인 '황토빛 제주화' 30년을 결산한다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르다.

변시지 화백이 누구이던가. '폭풍의 화가'로서 오랫동안 황토빛 바탕에 먹빛으로 제주 풍경을 그려왔다. 스스로에게 순수했던 노화가의 외길 인생은 그의 황토빛 풍경화들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 그의 그림 앞에서 사람들은 잠시 세속의 시간을 버린 채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어떤 이들은 그의 그림을 두고 '통곡의 벽'이라 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그림에서 제주의 혼과 예술가의 참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통곡의 벽이든, 제주의 혼이든 그의 화폭에서는 이제 거친 바람도 거스를 수 없는 평화가 스며있다. 이것은 오랜 시련과 마주한 존재의 무게에서, 그리고 헤아림과 수용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일본에서 얻었던 화려한 명성과 찬사를 뒤로 한 채, 중앙확단에 대한 미련도 없고, 오직 자신만의 색깔과 예술적 근원을 얻기 위해 진지한 모색을 멈추지 않았던 그의 긴 여정은 그림을 통해 고스란히 되돌려져 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작가가 제주 정착 이후 줄곧 찾아온 제주원형의 아름다움을 80년대부터 90년대를 거쳐 최근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작품 56점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56점의 전시 작품은 유화 50점·묵화 2점·판화 4점으로 이뤄졌다.

제31회 제주도미술대전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주최·제주도미술대

전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제31회 제주도미술대전>이 4년 연속 9개 전 부문에서 대상작을 배출했다. 지난 7월 27일 심사를 거친 올해 제주도미술대전은 한국화·서양화·조각·공예·판화·디자인·건축·사진·서에 등 9개 부문에서 대상작을 쏟아냈다.

서양화 부문에서는 문창배(33) 씨가 <시간-이미지>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해 화제가 됐다. 한국화 부문 대상은 김영훈(33) 씨의 <일상>이 차지했으며, 조각부문은 강주현(25) 씨의 <문명-23시 59분>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공예부문에서는 오창윤(30) 씨의 <섬지기>, 판화 부문 부지현(27) 씨의 <休>, 디자인 부문 이은아(27) 씨의 <2006년 제주방문의 해>, 건축 부문 조순종(25) 씨의 <영어장의 공간재생>을 통한 수변생태전시관 및 복합레저시설, 사진 부문 문재민(51) 씨의 <해녀>, 서예부문 최형양(55) 씨의 <묵매>(문인화)가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제주도미술대전에는 한국화 30점, 서양화 42점, 조각 5점, 공예 26점, 판화 17점, 디자인 19점, 건축 29점, 사진 81점, 서예 204점 등 총 453점이 출품한 가운데 이날 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 9점, 우수상 8점, 특선 63점, 입선 168점 등 모두 248점이 입상했다.

2005 한 여름밤의 해변축제

제주의 여름밤은 해변축제가 달란다.

다양한 출연진이 특색인 '2005 한 여름밤의 해변축제'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려 무더운 한 여름밤의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제주시가 94년부터 해마다 마련하고 있는 해변축제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여름이면 어김없이 열려 더위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을 달래주고 있는 무대.

올해는 8월 9일까지 20일간 대중공연에서 클래식음악, 무용, 연극, 재즈 등 다양한 장르에서 44개 팀의 1,500여 명이 무대에 올라 생동감 넘치는 열정을 전했다. 주최 측은 올해 해변축제에는 4만 명 이상이 제주해변공연장을 찾아 한 여름밤의 무더위를 달랠 것이라고 설명했다.